

照明實錄 太宗과世子廢立

(마지막회)

〈實錄研究家·人間文化財〉李 在 範

14. 태종의 의중왕자(意中王子)

끝으로 태종이 그의 왕자중에서 과연 어느왕자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태종은 세자 제의 방종한 행위에 대하여 분노한 나머지 몇번인가에 걸쳐 「왕자가 저하나 뿐인가」한바 있다.

그러므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세자를 대신할만한 왕자를 어의에 두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왕자는 과연 어느 왕자였을까? 오늘의 숙설대로 그가 바로 충녕대군(세종)이었을까? 매우 관심과 흥미를 끌만한 문제이다.

태종의 왕자는 왕비소생인 대군(大君)이 4명, 후궁소생인 왕자군(王子君)이 8명 모두 12명이었다. 국법상으로는 대군이나 왕자군이나 모두 왕위를 계승할 자격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범위를 좁혀서 대군들만을 대상으로하여 살펴 보기로한다.

대군은 세자인 제(禋:讓寧) 효녕(孝寧)인 보(補), 충녕(忠寧:世宗)인도(洵)와 성녕(誠寧)인 종(種)이다. 각대군들에 대한 인물됨과 태종의 관심도를 본다.

첫째, 효녕에 대하여. 18년 6월에 있었던 세자폐립때에 태종은 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바 있다.

『효녕은 자질이 미약하며 또한 그 성품이 심히 곧을뿐 넓이가 없다. 과인과 중궁이 그를 바라보면 항상 미소로서만 응대 하였느니.』

둘째, 충녕에 대하여,

① 13년 2월 30일. 궁중에서는 세자를 비롯하여 제대군들과 공주(公主)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왕인 태종과 모후(母后)인 민씨(閔氏)의 헌수(獻壽)를 비는 시가(詩歌)놀이를 하였다. 이때 태종은 충녕의 시재(詩才)가 뛰어난을 보고 세자인 제에게 일렀다.

『충녕은 장차 너를 크게 도울것이니라(將佐汝斷決大事者也).』

② 16년 2월과 7월. 태종은 충녕의 글재주를 칭찬 하면서 세자 제에게 학문에 열중하도록 촉구했다.

『세자는 충녕의 글재주를 따를수 없구나. 충녕이 비록 용맹스럽지 못한듯하나, 큰일을 처결할때에 당세에 그를 따를자가 없도다. (非世子所及 雖若不猛 臨大事決大疑 當世無與爲比). 그러하거니 너의 학문은 어찌하여 충녕만 못하느냐. 분발할지어다(汝學問 何不如是).』

③ 18년 6월. 세자책립교서에서

「충녕은 천성이 총민하고 지극히 학문을 좋아 하며 추운겨울이나 더운여름에도 밤을 세워 학문에 열중하니 가히 대임을 맡길직 하도다.」

세째, 성녕에 대하여. 성녕은 18년 2월 4일에 14세의 어린나이에 완두창(腕豆瘡: 전염병)에 걸려 일찍 죽었다. 태종은 크게 비통해했다. 몇일동안 수라를 들지 않았다. 대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태종은 수척한 모습으로 성석린(成石璘)을 찾았다.

『과인이 경을 만난지 이미 18년이 되었으니 경은 과인의 이마음을 헤아리리라.』

태종은 성녕이 놀던 궁중이 보기 싫다하여 개경(開京: 開成)에 있는 경덕궁(敬德宮)으로 떠나 버렸다. 태종은 개경에 있는 여섯달동안 매일같이 성녕을 생각하면서 어안에 눈물이 마를날이 없었다(淚不輟眼). 태종은 성녕의 묘(墓)가 있는 대자리(大慈里)에 대자암(大慈庵)이란 절(寺)을 세우게하여 그의 영혼을 위로케하였다. 또한 수륙제(水陸齋)를 베풀어 애끓는 제문을 지어 보냈다.

「슬프다, 복숨의 길고 짧음이 고르지 아니함은 하늘이 정한 기수(氣數)인지라 제왕의 힘으로도 이를 어찌하랴. 일찌기 너는 하루라도 과인의 곁을 떠난일이 없었거니 과인이 수라를 들고저할때 네가 미리 맛을 보고 과인이 사냥을 나갈때에 네가 나의 뒤를 따라 범유기(犯遊記)를 너와함께 하였거늘, 아아, 이제 이로써 끝이로다. 어이 할고 이마음을 것잡기 어렵도다. 너는 모습이 단결(端潔)하여 결휴(缺虧)함이 없었으며, 총명하고 온아(溫雅)하여 효제(孝悌)로 시행토다. 글을 읽고 활을 배워 장차 성인되면 늙은 나를 위로하겠거니 기대하였더니 슬프다 허사로다 같기해서 무엇하랴.

도사(禱祀)가 그릇된가, 의료(醫療)가 잘못된가 너의 모습 너의 음성 교교하고 삼삼토다...」

실로 패부를 여이는듯한 제문이 아닌가. 태종이 성녕을 얼마나 사랑하였느냐 하는것을 가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18년 3월 6일. 태종은 세자 제의 방종을 한탄하면서 또다시 성녕을 생각한 나머지 잠연히 눈물을 흘렸다.

『태조께서 개국한지 미구에 그 손자가 저러하니 이를 장차 어이할고. 죽은 아이 성녕은 이왕실의 면목(面目)을 새롭게할 아이였도다. 亡息誠寧 予家門 洗面子也). 일찌기 중국사신 황엄(黃嚴)이 그아이를 보고 심히 사랑하며 이르되 “이왕자는 장차 성장하면 능히 전하의 노경(老境)을 위로할 왕자(黃嚴居視間 甚愛之 謂將成就 以慰老境)”라 하였는데 이제 불행히도 그가 단명하였으니 무슨 소용이리오(不幸短命 何以爲之).』

그해 7월에 태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세자인 충녕에게 선위(禪位)의 뜻을 밝혔다.

『성녕이 죽은지 그 어느날이라도 그를 잊은일이 없었도다. 과인이 이렇듯 애절한 심정으로 어찌 국사를 살피겠는가. 곧 세자에게 선위를 하리라(流涕曰 誠寧早卒 無日不懷 豈有爲國之念 予欲內禪).』

태종은 그해 8월 8일에 세종에게 선위를 하고 말았다.

이와같은 사실들을 놓고 태종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던 왕자를 가려 본다.

첫째, 효녕에 대하여는 그 인간성이 온순하고 착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을뿐 별다른 관심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다.

둘째, 충녕대군에 대하여는 그총명성과 호학성을 높이 평가한점으로 보아 태종이 그리던 이

상적인 후계자 형으로 보아 무방할것 같다.

충녕의 글재주를 들어 항상 세자 제로 하여금 면학의 촉진제로 삼았으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큰일을 처결함에 있어 당세에는 그를 따를자가 없다』라고한 표현은 한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할수도 있다. 특히 태종이 충녕을 심히 사랑했다는 것은 양녕이 그 편애에 불만을 품고 세자의 위를 사위(辭位) 하겠다는 말까지 한 사실로 보아 알만한 일이었다.

여하튼 충녕은 매사에 있어 제를 알지르는 영특한 왕자였으며, 그러므로 태종이 심히 사랑하였던 왕자였다.

세제, 성녕은 어떠하였던가. 태종께서 그를 사랑함이 오히려 충녕보다 더하지 않았는가하는 추측이 된다.

성녕이 죽은후에 태종은 거의 이성을 잃다싶이하여 눈물속에 세월을 보낸 사실과 그가 죽은 뒤 얼마되지 않은시일에 세자폐립을 단행하고, 곧 선위를 하여버린 사실. 보다 더중요한 사실은 성석린에게 「경은 내마음을 알겠지」하였던것과 「그아이는 우리 왕실의 면목을 새롭게 하고 과인의 노경을 능히 위로할만한 아이였다.」라는 말은 실로 중대한 뜻을 담은 말이라 할것이다.

왕권(王權)의 보위를 위해서는 부자나 형제간 이라할지라도 군신(君臣)의 예로서 다루는것이 왕가의 법도일진데 왕실의 면목을 새롭게 하고 제왕의 노경을 위로할만한 왕자라면 왕통의 후계자로 암시 하였다고 보아 무방하지 않겠는가.

성녕은 태종의 제문에서 밝혔듯이 효제충신(孝悌忠信)하고 총명단아(聰明端雅)하며 학문과 기사(騎射)에도 능하였으므로 태종이 그러한 기대를 가질법도 한일이였다. 이에 반하여 충녕에

게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와같은 중대한 암시가 담긴 표현은 한번도 한일이 없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때 태종은 그어십이 충녕에게 보다 한층더 성녕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기도한다.

그와같이 태종의 마음을 메워오던 성녕이 급작스러히 죽자 태종은 공허한 마음을 달랠길이 없어 훌쩍 도성을 떠나 개경으로 이어하였다. 그 후 6개월간을 거의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세자 제의 항의서한을 계기로 세자폐립을 단행하고 세종에게 선위를 해버렸다.

만약의 경우 성녕이 죽지 않고 세자 폐립 때에 살아 있었더라면 그리고 또한 태종의 어십이 진정 충녕보다 성녕에게로 기울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역사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훈민정음(訓音正音 :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성덕을 우리들은 끝내 우러러 보지 못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나의 왕조(王朝)가 쓰러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것도 스스로의 권한인 왕위(王位)를 전승해 주는것도 태종의 탄식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대로는 할수없는 천기(天機)에 속하는것인지도 모른다.

『장자 장손(長子 長孫)에게 전국(傳國)하는것은 고금의 상전(常典)이며 본시 다른마음이 없었도다. 그러나 사세가 이에 이르름에 이는 모두 하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러한가 보구나(長子長孫 傳國 古今之常典 更無他心 有疑於此 天鑑不合也)』

(太宗과世子廢立 끝)